

지역 매아리



샘골보건지소,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시민건강 증진기어

샘골보건지소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5일 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기체조 명상교실과 짐볼운동교실, 건강체조, 라인체조, 순환운동요가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이다.

특히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운동 처방사가 1:1 눈높이에 맞춰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순환체조와 함께 짐볼 운동을 통해 자세를 교정해주고 허리와 복부 근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균형 감각 향상과 함께 긴장된 근육을 풀어 주고 원활한 혈액 순환을 도움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다.

이들 프로그램은 올해 1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으로 6월까지 진행된다. 샘골보건지소는 2기 수강생은 6월 말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샘골보건지소 생활건강팀(☎063. 539-67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발작물 생산단지 농로포장 정비사업 순항

고창군이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무장면 목우리과 부안면 상암리 일원 50ha의 집단화면 발작물 생산단지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을 올해 말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대상 지역은 경작로가 비포장이며 폭이 협소해 발작물 수송에 어려움이 많은 뿐만 아니라, 배수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매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군은 농민들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에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추진 시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농로포장 1.14km, 배수로 정비 3.33km, 송금수시설 1식 규모로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농작물 수확과 출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풍물’ 널리 알린다

고은 이동원 선생 추모 전국농악경연대회 내달 6일 개최

24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부안과 전북을 대표하는 ‘설장고 명인’ 고은(鼓隱)이동원(1922~1990) 선생을 추모하는 제6회 부안전국농악경연대회가 제6회 부안오복미실축제 기간인 오는 5월 6일 부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부안농악보존회(회장 이육수)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부안농악의 설장고 명인이었던 고은 이동원 선생을 추모하는 경연으로 민족의 혼과 숨결이 담긴 우리 가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활의 멋과 애환이 깊게 배어 있는 호남 우도 부안풍물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경연대회는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국 유명 농악 팀 10개팀이 출전해 일반농악(풍물) 20분 내외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부안농악보존회(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48-14 · ☎ 063-584-4182)로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상은 일반부 고은(鼓隱)대상(국회의장 상)과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장려상(전북도지사 상·부안군수상) 등이 주어진다.



부안과 전북을 대표하는 ‘설장고 명인’ 고은(鼓隱)이동원(1922~1990) 선생을 추모하는 제6회 부안전국농악경연대회가 제6회 부안오복미실축제 기간인 오는 5월 6일 부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경연대회의 경우 전북은 물론 강원 춘천과 경북 청도 등 전국에서 유명 농악 팀들이 참가해 우수한 기량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육수 부안농악보존회장은 “우리 가락의 대중화와 후진양성에 헌신하신 고은 이동원 선생의 뜻을 기리는 대회로 기량이 뛰어난 전국

의 풍물 인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져 신명나는 경연의 장을 마련했다”며 “부안농악보존회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육성해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 이동원 선생은 1930년대 말인 10살 때부터 장구 명인 김홍집 선생에게 장구가락을 사사받았다.

이후 고창상회 박성근 농악대와 신주목농악대에서 최막동과 함께 활동하면서 전성기를 맞는다.

1950년대 말에는 부안 김경천 박남식과 함께 부안여성농악대를 창단해 장구 후계자 양성에 집중한 결과 전남 여성 임재식국가무형문화재 이리농악 김형순 보유자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정인산보유자 등 다수의 명인을 배출했다.

이동원 선생은 1961년에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전북도 농악대 설치구 부문에 출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최고조의 실력을 과시했다.

1982년 전북농악경연대회에서 부안상서농악을 지도해 최우수상, 1986년 전주 대 시습 농악부문 차상, 전라예술제 전국농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1987년 부안군민의 장 문화장 등의 수상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부안=이육수기자

김석철 정읍시장 예비후보 “15만 첨단과학 · 관광 중심 정읍시대 열겠다”



“국책연구기관 확대와 연계 우량기업 50개(유치, 참단 RT/RT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국립과학술연구중심대학 유치, 테크노밸리 설립 및 도심권 식물·곤충테마파크 등 창의적 관광콘텐츠로 인구 15만)의 첨단과학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정읍시대를 열겠습니다”

김석철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5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읍의 비전을 이같이 밝히고 일지러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키우기 위해 첨단과학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방안과 함께 단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정읍천 관광자원화, 내장저수지의 국립공원 해제, 창의적 발상의 도시재생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사회적경제, 농업의 6차 산

업화, 서민경제,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사는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시된 정책들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재정확보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정처·인문·산업계 등 사회전반에 걸쳐 쌓은 두터운 지방·중앙인맥을 바탕으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읍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한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들을 끊임없이 퍼뜨리는 등 시민들을 기만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새 시대에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이 같은 구태는 그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 청산시켜야 한다”면서 “20년동안 의길을 걸어온 더불어민주당원으로서 이번 예비후보 공천심사에서 당원·당규를 지키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보건의 날 기념식 열어

정읍시보건소는 제46회 보건의 날(4월 7일)을 앞두고 지난 4일 보건소 4층 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문상용 정읍시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 관계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 날을 맞아 시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관련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보건 의식을 높이고, 공중 보건 분야에 공이 많은 시민과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사기와 화합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시민 보건 향상과 지

역 발전에 공이 많은 정읍시의사회장 이용호씨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공헌한 오경재 원광대학교수, 원종무 류 운동하는 내장산악회 모애급 대표약사, 시민 보건 향상에 공이 많은 공무원인 최진희씨와, 이은정씨, 이향선 씨가 시장표창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로서 정읍시민의 평생 건강을 위해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시민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장애인에 편리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

정읍시, 내달 말까지 장애인농장 시설 개선 6월 개장

정읍시가 장애인들의 전천후 체육활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장애인농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상평동 체육공원 내에 있는 장애인농장이 건축 9년여가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여론을 수렴, 시설을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평동 체육공원 내에 있는 농장은 지상 1층, 연면적 875여㎡ 규모의 전천후 시설이다.

시는 준공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 노후화 등에 불편이 커지면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전북도와 연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17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 선정되는 결실을 거둔 바 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2억1,000만원을 확보한 시는 시비 9,000만원을 더한 3억원을 들여 사업 추진에 나섰다. 관련해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용

역을 끝내고 지난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5월 말까지 농장지 지붕과 벽체를 보강하고 창고와 출입문을 정비하는 한편 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음향시설 설치와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등을 마치고 6월 개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된 시설이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겪어야 했던 불편이 말끔하게 해소돼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는 물론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방역당국,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

지난달 28일 경기도 김포 돼지 사육 농가에서 국내 첫 A형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고창군은 구제역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내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돼지, 소, 염소 등 970농가에 약 6만 8000두다.

군 방역당국은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관내 공수의 동원령을 시달려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1만 7000마리의 돼지 모돈

에 대해 일제 접종을 끝냈고, 소, 염소 등에 대해서도 오는 7일까지 일제 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1~2주가 걸리는 만큼 백신 접종 이후 임상관찰 등 구제역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내·외부 소독, 농장간 생축이동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제역과 AI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duct images. Includes text: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